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2.3

FEBR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원/달러 환율

1,461.90원 (+9.90원)

KOSPI

4,949.67 (-274.69, -5.26%)

KOSDAQ

1,098.36 (-51.08, -4.44%)

국고채 10년 금리

3.603 (-0.004%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Issue breaker	패닉셀: 코스피 저점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이재만]
ETF Insight	ETF 개정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완전 액티브 ETF 등장 예고 [박승진]
글로벌 ETF Weekly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케빈 워시의 정책 기조 재확인 필요 [박승진]
DIN (Doo It Now)	칩앤코스닥 바벨(Chip & KOSDAQ Barbell) 전략 [김두언]
월간 하나채권	[2월] 숨 고르는 미국, 인상 걱정하는 한국 [박준우]
신흥국 전략	인도 예산안 핵심 : 7대 전략 산업과 인프라 [김근아]

기업분석

KMW	머지 않아 미국과 유럽에서 큰 기회 올 것 [김홍식]
SK텔레콤	이젠 5G SA 시대에 걸 맞는 Multiple 고민해야 [김홍식]
쏠리드	과거 2019년 당시 순환매를 상기할 시점 [김홍식]
우림피티에스	[탐방노트] 신성장 산업으로 영역 확대 [한유건]
삼성SDI [상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수]

산업분석

자동차	자동차 물량 변수의 영향력 약화. 미래 성장동력이 주가 방향성을 좌우[송선재]
증권	조정을 매수 기회로 [고연수]
Monthly & Weekly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2025년 12월 EV +6%, HEV +7%. 유럽을 제외한 주요 지역 부진 [송선재/김현수]
건설	공급대책, 12월 주택통계 [김승준]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증권, 대한전선, 엘앤에프, 금호석유화학, 디앤디파마텍, 케이엠더블유, 브이엠, 덕산하이메탈, CJ프레시웨이

하나증권

2026년 2월 3일 | Global Asset Research

Issue Breaker

패닉셀: 코스피 저점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RA 박성제 parksungjae@hanafn.com

2026년 1월 말 새로 지명된 케빈 워시 연준(Fed) 의장의 경우는 대차대조표의 정상화(연준 자산규모 축소)와 정부의 정책 공조(기준금리 인하)를 강조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매파적인 성향이 강해 보일 수 있다.

연준 자산규모의 축소는 향후 미국 장기금리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하는 향후 단기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면상(장단기금리차 상승)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새로 지명된 연준 의장의 과거 성향과 최근 의견을 투자자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9월~11월 연준(Fed) 기준금리(당시 5.50%) 동결 국면에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어서 5.0%에 근접하는 상승 국면에서 지수 조정이 발생했었다. 당시 S&P500지수는 -9%, 코스피는 -10% 하락했다.

과거 코스피 강세장 내 조정은 직전 고점 대비 -8~-10% 하락했다. 과거 경험을 적용 시 금번 코스피 저점은 4,700~4,800p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되는 시나리오는 우선 신용스프레드 상승이 동반될 경우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투기등급(HY)과 투자등급(IG) 신용스프레드는 265bp와 72bp로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Tech 섹터의 투기등급 신용스프레드가 최근 상승하며 평균을 상회하고 있지만, 투자등급은 72bp로 2025년 11월을 정점으로 하락 전환했다.

한편 미국과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Tech 및 반도체의 이익 확장 및 수익성 상승 사이클이 종료될 경우에도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S&P500 Tech 섹터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은 7,773억 달러로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Tech 섹터의 금번 분기 어닝서프라이즈 비율도 현재 88%(S&P500 7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예상 영업이익률 또한 34%(3개월 이동평균)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 1월 코스피의 역대급 주가 수익률 실현으로 투자자들 역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시점에 연준(Fed) 의장 교체가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강세장의 종료는 실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신용위험 확산, 또는 주도 업종의 이익 및 수익성 사이클 정점 통과 국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아직은 이런 징후는 없어 보인다.

전일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조정은 강세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강세장 내 조정은 주도 업종의 강한 가격 조정이 동반된다. 강세장에서 조정 발생 시 주도 업종은 코스피 대비 1.5~1.9배 정도 하락률이 더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강세장에 변함이 없다면 기존 주도 업종은 변하지 않고, 주도 업종은 상승 시 코스피 대비 2.0~2.6배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주가는 빠르게 회복된다.

2026년 2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ETF Insight

ETF 개정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완전 액티브 ETF 등장 예고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의 비대칭적 규제에서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수요 유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을 정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규정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던 국내 상장 ETF들의 종목 유형이 더 확대되고, 국내 기초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화 ETF들의 등장도 다양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2분기 중 완료 예정이며, 금감원과 거래소의 심사까지 거쳐 실제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개정안 내용들이 반영될 경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국내 데일리옵션 커버드콜 ETF, 개별 종목 기반의 커버드콜 ETF도 상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에서 빠르게 영역을 확장 중인 액티브 ETF 종목들도 더욱 유연하고 활발하게 커버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등장 가능성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과 홍콩 증시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대표 카테고리 중 하나이다. 지수가 아닌 단일 종목(Single-Stock ETF)을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높이거나, 매도 베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전략의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다. TSLL, NVDL 등의 미국 상장 ETF들 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에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들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국내 상장 ETF들은 포트폴리오 분산투자 요건에 따라 하나의 ETF 종목에 최소 10개 종목이 편입되어 있어야 하고, 종목당 최대 비중이 30%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하나의 종목을 30%까지 편입하고 70%는 채권 종목들로 혼합하거나, 2~3개 종목들을 30% 내에서 높은 비중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7~8개의 종목을 낮은 비중으로 함께 조합하는 형태 등으로 새로운 ETF들이 꾸준히 등장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들이 상장될 수 있겠다. 다만 미국과 동일하게 레버리지 비율은 ±2배에서 제한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2020년 파생상품 사용 규정을 현대화(Rule 18f-4)하면서 펀드의 전체 레버리지 리스크를 VaR 기준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다. 펀드의 VaR이 기준 포트폴리오(지수 등) VaR의 200%를 넘지 못하게 하는 상대 VaR 제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어, 사실상 기초 자산의 2배를 넘어가는 레버리지 ETF가 나오지 못하도록 해놓은 상황이다. 현재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SOXL/SOXQ, TQQQ/SQQQ 등의 3배 레버리지 ETF들은 상기 규정 변경 이전인 2010년 상장 종목들로, 당시에 기상장 종목들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거래되고 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종목들은 기존 레버리지 ETF보다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사전 교육 내용에 심화 부분이 추가되며, 기본 예탁금 1천만원의 조건을 적용한다. 기본 예탁금 1천만원의 기준은 기존 해외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에게도 새롭게 반영되는 내용이다. 종목명에는 '단일종목' 표기가 의무화된다.

2) 커버드콜 등 구조화 ETF 개발을 위한 기반(옵션 다양화) 마련

현재 미국 금융시장에는 지수와 개별 주식 옵션의 만기가 매일 도래하는 환경이 갖춰져 있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파생형(구조화) ETF가 활발히 출시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월배당 ETF처럼 정기적인 배당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높아진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수 및 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의 약 71%가 국내 자산이 아닌 미국 자산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상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150 지수의 위클리옵션 만기를 기존 월요일과 목요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로 확대하여 운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개별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하는 위클리옵션(목요일 만기)을 새롭게 도입하고, 국내 투자 ETF를 기초로 하는 월간 및 위클리 옵션 상품도 신설하여 새로운 종목 형태의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파생상품 시장 확대 조치 역시 2026년 상반기 중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3) 지수 연동(상관계수 기준)없는 완전 액티브 ETF의 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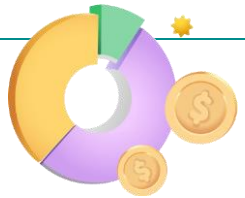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 금융시장에는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지난해 미국 시장에 새로 상장된 ETF 중 84%가 액티브 ETF였고, 연말 기준으로 전체 ETF 종목 가운데 54%가 액티브 ETF일 정도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패시브 ETF에만 집중해왔던 주요 운용사들도 액티브 ETF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BlackRock, State Street, Invesco, Vanguard와 같은 전통적인 패시브 중심 운용사들도 액티브 ETF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JP Morgan과 First Trust, Direxion 같은 운용사들은 이미 라인업의 절반 이상을 액티브 ETF로 구성 중이다.

그러나 현행 국내 자본시장법상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ETF는 상장지수 집합 투자기구로서 반드시 특정 가격이나 지수에 연동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 자유로운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현재 국내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패시브 ETF는 0.9)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운용을 통해 확실한 초과 수익을 만들어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상황에 자리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ETF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 목적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2026년 상반기 중 국회에서 개정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상관계수의 제한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가 상장된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상황 변화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ETF들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 시장에도 잘 알려져 있는 ARK Invest의 혁신기업 ETF들처럼 성장주 포트폴리오의 적극적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나, 앞서 새로운 옵션들과의 조합을 통해 Amplify의 DIVO/QDVO부터 Yieldmax의 ULTY처럼 다양한 전략이 반영된 액티브 ETF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운용 역량이 뛰어난 중소형 운용사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도 예상 가능한 변화의 내용이 되겠다.

글로벌 ETF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2.2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ETF 트렌드 & 포트폴리오: 케빈 워시의 정책 기조 재확인 필요

단기 예상 벗어난 차기 연준의장 지명. 수급 집중 자산들의 되돌림 방어: SMH, PAVE, MADE, QDF, QGRO 활용

- **글로벌 수급**: 신흥 아시아 ETF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난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인해 글로벌 ETF 시장의 수급 약화 흐름이 지속되었다. 글로벌 선진 주식형 ETF 시장 +169.5억달러, 북미 주식형 ETF 시장 +192.4억달러의 자금 유입이 진행되면서 선진국 주식형 ETF 시장으로 총 +383.2억달러가 순유입되었으나, 신흥 아시아 주식형 ETF 시장에서 -556.3억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주식형 ETF 시장에서 2주 연속 자금 유출 흐름이 나타났다. 글로벌 채권형 ETF 시장에서도 신흥 아시아 지역의 채권형 ETF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자금 순유출 현상이 진행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 금주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기업들이 분기 실적을 공개한다. 월요일(2/2) 미국 장 마감 후에 국내 투자자들의 최우선 관심 종목들 중 하나인 Palantir가, 화요일(2/3)에 AMD가 실적을 내놓으며 각각 소프트웨어 및 방산 기술주,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어 수요일(2/4) 개장 전에는 비만치료제 시장을 두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진행 중인 Eli Lilly와 Novo Nordisk가, 장 마감 후에는 Alphabet과 Arm이 실적을 내놓는다. Alphabet과 Amazon(2/5)은 지난주 Microsoft와 Meta의 주가 반응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즈니스 특징을 고려한 수익 회수 시기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주가 차별화 및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경제지표의 경우 1월 ISM 보고서(제조업: 2/2, 서비스업: 2/4)와 1월 고용보고서(2/6), 2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잠정치(2/6)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견고한 경제성장 가운데 불안정한 물가와 고용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역시 고용보고서가 중요한 시기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6.5만명(12월: +5.0만명)까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4.4%에서 유지될 것으로 추정 중이다. 가계 서베이 응답률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표 수정 작업도 지속되고 있으나, 차기 연준 의장이 지명된 상황인 만큼 주요 경제지표 확인 과정에서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다. 지난주 확인된 12월 근원 PPI가 전월대비 +0.7%를 기록하면서 크게 상승했던 상황 역시 경계심을 높이는 배경이 되겠다.
- 한편 차기 연준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그동안 급등세를 보이던 금과 은 가격이 급락하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이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케빈 워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직으로 재직하던 당시 케빈 워시 지명자는 매파적 스탠스 하에 QE를 반대하며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조기 사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막연한 매파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었고, 특히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릭 리더 BlackRock CIO의 성향과 비교되었던 상황도 더욱 이러한 해석을 강화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 하지만 실제로는 공급 주도의 경제학을 주장하는 가운데 높은 성장률 하에서도 생산성 개선(AI 주목)에 의한 물가안정이 나타날 경우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2018년에는 금리인상에 반대, 팬데믹 당시 금리인하 적정성 동의), 시장 인식보다 유연한 스탠스를 내비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미 국채 금리와 달러화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가운데, 단기간 내 가파른 쏠림 현상이 발생했던 영역 중심의 조정이 진행되었다.
- ETF 포트폴리오의 경우 여전히 AI 산업 성장 기반의 CHAT(AI)와 SMH(반도체), ZAP(전력), URA/NLR(원전) 포지션에 대한 중장기 우선순위 관점을 유지하면서, 정부 정책과 민간 확장 모멘텀을 갖춘 ARKQ/BOTZ(AI&로봇)와 ARKX(우주항공), 현대화된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한 SHLD(방산테크)와 XLE(에너지), 개별 수요 기대와 이벤트 모멘텀이 유효한 XBI(바이오테크),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및 관세 정책 모멘텀이 유효한 PAVE(인프라)/MADE(제조업)/XLI(산업재), 불확실성 방어 목적의 QDF(퀄리티배당), QGRO(퀄리티성장) 등을 함께 시야에 두는 전략을 제시한다.

2026년 2월 3일 | Global Asset Research

DIN (Doo It Now)

칩앤코스닥 바벨(Chip & KOSDAQ Barbell) 전략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내외 주식시황 김두언 kimdooun@hanafn.com
RA 안범수 beomsooahn@hanafn.com

(결론적으로) 반도체(Chip) 주도주를 코어로, 코스닥150을 병행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일명 칩앤코스닥 바벨 전략이다. 기관이 코스닥을 이끌고 있다. 개인은 순매도로 보이지만 ETF 매수가 투신 및 금융투자로 잡히는 통계 착시를 감안하면, 이탈로 단정하기 어렵다. 금리, 경기 전환기에 코스닥150의 탄력도가 커지는 구조에 더해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가 위험 선로를 강화한다. 반도체 수출 급증이 AI 사이클을 견인하며 주도주의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있다.

2026년 국내 증시는 '오천피'라는 상징적 구간을 관통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스닥은 전세계 주요 대표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2026년 누적 수익률(YTD) 기준 +24.2% 상승해 코스피(+24.0%)를 근소하게 상회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탄력의 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유동성 공급' 수준을 넘어 '구체적 실행'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로 기관은 1월 한 달 동안 코스닥 시장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11.2조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이 먼저 판을 깐 동안 개인 수급은 표면상 순매도로 기록됐다. 코스피가 실적 기반의 확신으로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정책 모멘텀과 기대가 선반영되는 성격이 강해 개인들의 체감 상 확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2018 년 초 정책 발표 이후 정책 효과가 충분히 지속되지 못했던 경험이 아직 시장 기억에 남아 있고, 지난해 말 시가총액 1 위였던 알테오젠 관련 이슈 또한 중장기 투자 유인을 일부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개인 수급은 통계의 '표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코스닥 수급 분류에서 '금융투자'는 주로 증권회사 계정의 거래를 의미하는데, 1 월 말 누적 기준 금융투자 순매수는 +12.5 조 원에 달했다. 이는 개인이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보다 코스닥 지수 ETF 를 선호하며 익스포저를 구축한 흐름이 현물 주체별 수급에서는 개인이 아닌 '투신 및 금융투자'로 포착되는 구조적 특성(집계 착시)과 맞닿아 있다. 즉, 개인이 코스닥을 외면했다기보다 '직접투자'가 아닌 '지수형 투자'로 접근한 흔적이 더 뚜렷하다.

이러한 수급과 정책의 조합 위에, 2026 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통계적 배경도 존재한다. 2014 년을 기점으로 코스닥 150 지수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을 3 년 주기로 상회해 왔다는 관찰 결과다. 물론 3 년 주기는 법칙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관측된 리듬에 가깝다. 다만 그 리듬이 형성된 배경을 분해해보면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반도체 D 램 재고 사이클의 교차, 그리고 거시적으로 '경기 바닥 통과, 기대 성장률 반등, 금리 부담 완화'가 겹친 구간에서 코스닥 150 의 탄력도가 커졌다는 점이 공통분모로 남는다.

대형주/가치주/수출주 중심의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150 은 성장/기술/중소형 대표 종목 비중이 높아 동일한 환경 변화에서 베타(수익률)가 확대되기 쉬운 구조다. 2023 년이 직전 '3 년 주기'의 마지막 해였다면, 2026 년은 다시 3 년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시장이 이 통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대외 환경 역시 '완화 기대'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1 월 말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 그는 2006 년 최연소 연준 이사로 이름을 알렸고, 모건스탠리 부사장 경력을 거쳐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에서 파트너로 활동한 이력도 갖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이끄는 베센트 재무장관과 함께, 워시는 '지금 상황'보다 '앞으로 바뀔 방향'에 먼저 베팅한다는 드러큰밀러식 투자 철학을 공유한다. 이 때문에 시장은 두 사람의 조합을 정책 방향을 읽는 해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관세라는 정책 변수와 생산성 제고가 관건이지만, 워시 체제 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는 것은 위험 자산 선호에 우호적이다. 더불어 2025 년 6 월 이후 글로벌 경기가 확장 국면에서 상승 폭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경기 바닥 통과' 이후의 자산 가격 환경을 뒷받침한다. 금리 부담 완화, 경기 회복 신호, 정책 효과의 지속성, 수급의 기세가 겹치며 코스닥 150 의 기대수익률을 끌어올릴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여전히 주도주를 사자(여주사)'라는 전략은 유효하다. 과거의 3 년 주기 구간에서도 코스피 전체 지수는 코스닥 150 에 미치지 못했지만, 코스피의 주도주는 종종 코스닥 150 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2023 년 2 차전지 급등이라는 특이 사례는 예외로 두더라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실적 개선의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 1 월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02.7%로 전체 증가를 견인했고, 자동차(+21.7%)와 함께 컴퓨터(+89.2%), 무선통신기기(+66.9%), 디스플레이(+26.1%), OLED(+32.6%) 등 IT 전 품목이 동반 증가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병목과 부족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 시점이 계속 이연되고 있다는 점은 업황의 '피크아웃'을 늦추는 요인이다. 결국 반도체 주도의 IT 사이클이 견조하게 이어지는 한, 코스피 주도주의 실적 모멘텀은 코스닥 랠리와 별개로 독립적인 투자 논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현 국면의 핵심 전략은 명확하다. 정책과 수급, 거시 환경이 코스닥 150 의 탄력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맞물리는 동안, 포트폴리오의 중심에는 '반도체 칩(Chip) 주도주'라는 확실한 이익 기반을 두고, 한 축에는 '코스닥 150'이라는 정책 및 유동성 레버리지를 배치하는 선택과 집중이 유리하다. 대형주가 제공하는 실적의 확실성과 코스닥이 제공하는 기대수익률의 확장을 동시에 담는 조합이, 2026 년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리적인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026년 2월 2일 | Global Macro Strategy

월간 하나채권

[2월] 숨 고르는 미국, 인상 걱정하는 한국

Fixed Income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월간 국채 투자의견 (향후 1~3개월)

	축소		중립		확대
한국			■		
미국				■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 1월과 동일하게 미국 국채 '확대', 한국 국채 '중립' 의견을 제시한다.
- 미국: Warsh가 지금도 매파적일 이유는 없다. 인하 사이클이 유효한 환경에서 국채 금리가 추세 상승할 가능성은 낮다.
- 한국: 수출 호조에 더해 주가 상승 등에 따른 부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고 금리는 인상 리스크와 싸우는 Higher for Longer 환경이 예상된다.

1. 미국: 인하 사이클은 유효

1) 매크로 – 소득을 뛰어넘는 소비가 지속될 수 있을까
- 소득 대비 높은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위험. 단, 고용 회복과 정부 부양책은 변수

2) 통화정책 – Kevin Warsh의 인하 근거
- '금리 인하 + B/S 축소' 추구. 인하의 근거는 (1) B/S 축소와 (2) 생산성 향상

3) 채권시장 – 그래도 인하 사이클이라면…
-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기 전까지 국채 금리 하향 안정. 1996년 사례 참고

2. 한국: Higher for Longer

1) 매크로 – 한국의 Wealth Effect
- 수출 호조 속 가파른 회복. 주가 급등이 가져올 부의 효과로 상반기에 소비도 견조

2) 통화정책 – 환율 불안과 성장률 전망 개선
- 아직 환율 안정 확신할 수 없고, 올해 성장률 2% 수준으로 상향 예상. 동결 장기화

3) 이슈 – 초과세수 활용한 10조원대 추경 가능성
- 5~6월 추경 편성 가능성. 초과세수 활용한 미니 추경으로 충격은 제한적

4) 채권시장 – 시장의 인상 우려 속 국고 3년 3.0%~3.2%
- 작년 4분기와 달리 펀더멘털 주도로 금리 상승. 인상 리스크 저울질하는 국면 지속

3. 투자 전략 및 금리 전망

1) 국채 투자 의견 (향후 1~3개월)
- 한국: 기준금리 인상 리스크 지속. 단, 실제 인상은 예상하지 않아 축소 아닌 중립 의견
- 미국: 인하 기대만 유지되더라도 국채 금리 하향 안정 기대. 확대 의견 유지

2)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 전망 (전망 표는 p. 17)
- 컨센서스 대비 한국 국채 2, 3월 '약세', 하반기 '강세' 전망
- 컨센서스 대비 미국 국채 2분기 '강세', 하반기 '약세' 전망

2026년 2월 3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예산안 핵심 : 7대 전략 산업과 인프라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1) 경제 고성장 기조의 지속과 2) 성장 기반 강화 두 축으로 구분 가능

인도 FY2027년 예산안이 2월 1일 발표됐다. 인도 예산안은 향후 1년간의 정책 우선순위와 성장 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문서로, 연중 가장 중요한 정책 이벤트 중 하나다. 직전년도인 FY2026에는 트럼프 재임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가 예상되면서 정부 정책 기조가 내수 부양에 강하게 기울었다. 실제로 중산층 중심의 세제 개편과 GST(상품 및 서비스세) 인하를 통해 소비심리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FY2027년에는 단기 경기부양보다는 고성장 기조의 지속과 성장 구조 고도화에 다시금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에 시장의 관심 역시 그간 인도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제조업과 인프라 투자 기조의 유지 여부에 집중된 상황이었다.

이번 예산안은 크게 1) 경제 고성장 기조의 지속과 2) 성장 기반 강화라는 두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부는 제조업·서비스업·농업을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나, 정책 메시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영역은 제조업이다. 정부는 7대 전략 산업(바이오, 반도체, 전자, 희토류, 화학, 자본재, 섬유)을 중심으로 제조 규모 확대와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특히 바이오·전자·반도체는 고부가 제조 전환과 공급망 자립이라는 기존 정책 목표와도 직결되고, 밸류체인 전반으로의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 경로를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판단되며, 세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바이오는 인도가 이미 비교우위를 보유한 분야로,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제네릭 의약품과 백신을 중심으로 한 대량 생산 역량이 핵심 강점으로 작용해왔다. 다만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생산기지 성격이 강했고, 바이오시밀러나 고부가 신약 등에서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번 예산안은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가운데, 고부가 의약품 개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단순 생산기지에서 벗어나 바이오 강국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이에 향후 5년간 1,000억 루피를 투입해 인도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며, NIPER(국립제약교육연구소) 3곳을 신설하고, 100개 이상 공인 임상시험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자 분야에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보다 분명하게 이동했다. 그간 인도 정부의 전자 제조 정책은 PLI를 통해 완제품 조립·수출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으나, 이번 예산안은 정책 초점이 부품 국산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25년 4월 도입된 ECMS(Electronics Components Manufacturing Scheme)는 전자부품의 국내 생산 확대와 수입 의존도 축소를 목표로 한 인센티브 제도로,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의 신청이 빠르게 확대되며 예상 투자 약정 규모가 초기 투자유치 목표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ECMS 인센티브 한도를 기존 약 2,300억 루피에서 4,000억 루피로 증액했다. 이는 전자부품 분야의 투자 수요가 당초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향후 부품 현지 조달률 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직·간접 고용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022년 추진된 ISM 1.0의 연장선에서 ISM 2.0이 제시됐다. 장비·소재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숙련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자립도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2) 성장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인프라 개발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단기적인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니라, 제조업 고도화와 민간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는 중장기 성장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FY2027 예산에서 인프라 관련 지출은 12.2조 루피로 전년 대비 +8.9%, 수정 예산안 대비로는 +11.5% 확대됐다. 이번 예산안은 도로·철도 등 기존 인프라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Tier Ⅱ·Ⅲ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최근 민간 부문 인프라 투자가 부진한 점을 감안해, 인프라 리스크 보증 기금(Infrastructure Risk Guarantee Fund) 설립을 통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리스크를 완화하고자 했다. 민간 개발업체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공 투자 중심에서 민관 협력(PPP) 기반의 인프라 확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종합하면, 이번 예산안은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첨단 기술 제조 허브로의 도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산안 발표 당일인 2월 1일 인도 NIFTY50 지수는 -1.96%로 큰 폭 하락했는데, 이는 예산안에 선물·옵션(F&O)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STT) 인상안이 포함되면서 단기적으로 거래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기 정책들의 효과는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성격이 강해 단기 실적이나 주가로의 즉각적인 전이는 제한적인 반면, 거래비용과 같은 요인은 단기 수급이나 가격에 빠르게 반영되기 쉽다. 이에 따라 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나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당분간 정책 모멘텀이 비교적 가시적인 인프라, 전자부품, 바이오 등 업종 중심의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02월 0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KMW (032500)

머지 않아 미국과 유럽에서 큰 기회 올 것

BUY (유지)

목표주가(12M)	35,000원(상향)
현재주가(2.02)	18,07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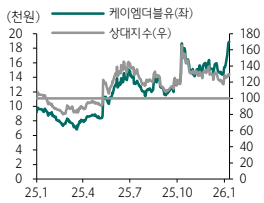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098.36
52주 최고/최저(원)	18,920/6,840
시가총액(십억원)	739.6
시가총액비중(%)	0.12
발행주식수(천주)	40,93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43.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3.9
외국인지분율(%)	5.52
주요주주 지분율(%)	
김덕용 외 1 인	31.3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04.6	259.5
영업이익(십억원)	(23.3)	50.0
순이익(십억원)	(29.5)	52.8
EPS(원)	(751)	1,290
BPS(원)	2,661	3,95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00.1	87.4	104.6	176.0
영업이익	(62.9)	(45.5)	(23.4)	13.0
세전이익	(53.0)	(37.4)	(28.9)	12.4
순이익	(65.3)	(38.6)	(30.3)	12.4
EPS	(1,640)	(969)	(753)	303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흑전
PER	(7.55)	(9.06)	(24.00)	59.64
PBR	2.82	2.43	5.94	5.40
EV/EBITDA	(9.86)	(11.15)	(45.59)	39.30
ROE	(31.45)	(24.24)	(22.56)	9.48
BPS	4,391	3,607	3,044	3,347
DPS	0	0	0	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12개월 목표가 35,000원으로 상향, 단기 실적보단 통신장비 업황이 중요

KMW 12개월 목표주가를 35,000원으로 올린다. 최근 코스닥 지수 및 국내외 통신장비 업체 주가 상승에 따른 Target Multiple 상향 조정에 따른 결과이다. 물론 KMW 실적 호전이 본격화되려면 아직도 기다림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주파수 경매와 국내외 5G SA 구축 진행 상황을 감안하면 아마도 2026년 하반기에나 유의미한 실적 호전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MW를 적극 매수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KMW 및 국내 통신장비 업종 특성상 개별 종목 실적보다는 장기 업황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절대적이고, 2) 피지컬 AI 활성화 목적으로 미국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5G SA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며, 3) 미국에 이어 EU에서도 중국 장비/부품 제재가 본격화되고 있어 KMW의 에릭슨 벤더 선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4) 안테나/필터/시스템 부문에서 경쟁업체들의 위상이 낮아짐에 따라 자연스러운 KMW M/S 상승이 미국/유럽/국내 시장에서 나타날 것임을 감안하면 5G SA 시장 개화 시 큰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 수요 확대, 경쟁 완화로 미국/유럽 시장에서 큰 기회 맞이할 것

아직은 국내외 통신사들이 올해 CAPEX 전망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결국 트래픽 증가와 5G SA 구축 필요성 때문에 2분기 이후 CAPEX 상향 조정이 예상된다. 더불어 미국과 EU의 중국 업체 퇴출 조치는 에릭슨/노키아/삼성에 큰 기회 요인이 될 전망이다. KMW도 2026~2028년 큰 수혜가 예상되는데 삼성은 물론 에릭슨/노키아도 중국 부품/장비 아웃소싱에 문제를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국내 업체가 가장 좋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2025년 RH머트리얼즈 실적 호전에는 루멘텀이 공급업체를 변경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2026년에는 에릭슨이 공급업체 변경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KMW가 에릭슨과의 협상에 진전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에릭슨으로의 공급이 가능해지면 버라이즌만이 아닌 AT&T와 T-Mobile에도 장비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M/S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 KMW에 관심을 높일 것을 추천한다.

5G SA 본격 확산 전망, 현 시가총액 감안 시 주가 상승 압력 커질 것

현재 KMW의 시가총액은 7,700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통신장비 업계에서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고 해도 가격적인 매력이 큰 상황이다. 여전히 기지국 장비 업체 중에선 대표적인 1등 업체이고 필터/안테나 부문에서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에릭슨으로의 본격 매출에 성공한다면 글로벌 M/S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외 통신장비 업체 시가 총액을 감안하면 단기 실적 부진에도 장기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6년 02월 0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SK텔레콤 (017670)

이젠 5G SA 시대에 걸 맞는 Multiple 고민해야

BUY (유지)

목표주가(12M)	100,000원(상향)
현재주가(2.02)	69,1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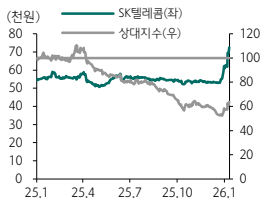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949.67
52주 최고/최저(원)	72,500/50,700
시가총액(십억원)	14,842.0
시가총액비중(%)	0.36
발행주식수(천주)	214,790.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039.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0.7
외국인지분율(%)	38.85
주요주주 지분율(%)	
SK 외 9 인	30.59
국민연금공단	7.45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7,157.4	17,752.1
영업이익(십억원)	1,071.1	1,834.2
순이익(십억원)	353.8	1,193.2
EPS(원)	1,693	5,464
BPS(원)	53,749	56,087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17,608.5	17,940.6	17,214.4	17,909.5
영업이익	1,753.2	1,823.4	1,081.9	1,872.2
세전이익	1,488.2	1,761.8	662.2	1,552.2
순이익	1,093.6	1,250.2	345.8	1,145.2
EPS	4,997	5,810	1,610	5,332
증감율	19.86	16.27	(72.29)	231.18
PER	10.03	9.50	42.92	12.96
PBR	0.94	1.01	1.25	1.20
EV/EBITDA	3.87	3.73	4.30	3.88
ROE	9.63	10.83	2.95	9.52
BPS	53,424	54,898	55,127	57,741
DPS	3,540	3,540	2,000	3,50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매수 유지/12개월 TP 10만원으로 상향, 통신서비스 업종 내 Top Pick 유지

SKT 12개월 목표주가를 100,000원으로 25% 상향 조정한다. 최근 미국 통신사들의 높은 주가 상승과 5G SA 도입 논의 본격화에 따른 Multiple 상향 조정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더불어 SKT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국내 통신서비스 업종 내 Top Pick으로 제시한다. 기존의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SKT 탄력적인 주가 반등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 추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피지컬 AI 활성화를 목적으로 5G SA 도입 논의가 미국/국내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어 SKT Multiple 확장 국면이 예상되고, 2) 국책 AI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일부 AI 펀드들의 SKT 편입 가능성이 있으며, 3) 낮은 기저로 2026년도에는 높은 이익 성장이 예상되고, 4) 현금 흐름 개선으로 2026년도에는 조기 배당 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미국/한국 5G SA 도입 논의 본격화, 피지컬 AI 관련주로 부상하는 상황

최근 미국/한국을 중심으로 5G SA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AI 활성화를 위해 피지컬 AI를 밀기 시작했는데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려면 5G SA 상용화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이미 주파수 경매 일정이 나오고 있으며 국내에선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이 발표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요금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B2B만 가지고는 어렵고 B2C 모델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로 SKT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공서를 중심으로 본 AI 모델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주가 파장은 클 수 있다. 과거 통신사의 결정적 성장은 요금제 개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예상대로 2026년도엔 5G SA로의 진화를 통한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AI와 양자암호통신이 킬러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KT 주가가 2012/2020년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과거 LTE/5G 도입 당시 생각하면 기대배당수익률 3% 수준까진 주가 반등 예상

LTE와 5G 도입 당시 SKT 주가는 높은 주가 상승을 나타냈으며 기대배당수익률 3%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익/배당 성장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왠지 분위기가 그 당시와 흡사하다. 피지컬 AI의 성공을 위해 전세계 국가에서 5G SA 도입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금제 개편은 하반기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나 주가는 이를 선반영할 것이다. SKT 주가가 10만원까지 올라도 기대배당수익률이 3.5% 수준으로 낮지 않으며 PER 역시 18배에 불과하다. 2026년 내 10만원 상향 돌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2026년 02월 03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쏠리드 (050890)

과거 2019년 당시 순환매를 상기할 시점

BUY (유지)

목표주가(12M)	15,000원(상향)
현재주가(2.02)	8,3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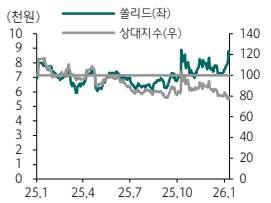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098.36
52주 최고/최저(원)	8,890/5,920
시가총액(십억원)	505.5
시가총액비중(%)	0.08
발행주식수(천주)	60,756.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287.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0.2
외국인지분율(%)	10.70
주요주주 지분율(%)	
정준 외 2 인	10.52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286.1	349.8
영업이익(십억원)	19.3	36.1
순이익(십억원)	19.6	32.1
EPS(원)	323	528
BPS(원)	5,550	6,03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321.4	331.1	286.1	298.8
영업이익	36.3	35.1	19.3	23.9
세전이익	49.1	54.3	19.3	24.6
순이익	40.9	46.1	19.7	21.4
EPS	668	754	323	353
증감율	37.17	12.87	(57.16)	9.29
PER	9.07	8.81	25.76	23.57
PBR	1.35	1.25	1.50	1.42
EV/EBITDA	8.44	8.65	16.21	14.90
ROE	16.30	15.52	6.01	6.28
BPS	4,492	5,326	5,561	5,865
DPS	50	50	50	50

Analyst 김홍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투자의견 매수, 12개월 목표가 15,000원으로 상향, 매수 적기로 판단

쏠리드 12개월 목표주가를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근 코스닥 시장 지수 상승과 국내외 통신장비 업종의 높은 주가 상승을 반영한 결과이다. 인빌딩 전문 업체라 주가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키 맞추기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한다. 추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2025년 4분기 실적이 양호할 전망이고, 2) 유럽 시장 매출처 확대와 미국 시장 회복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이익 성장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3) 미국/유럽 중국 장비 제재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4) 올해 추정 실적 기준 PBR 1.5배 수준으로 절대 저평가 상황이기 때문이다.

2026년은 이익 증가 전환 가능성 높음, 유럽 시장 견조한 가운데 미국 수출 늘 것

쏠리드는 2023년 이후 이익 감소 현상이 지속되었다. 2024년도엔 미미한 이익 감소 현상이 나타났지만 2025년도엔 이익 급감 양상을 나타냈다. 미국과 더불어 국내 매출 감소 영향이 컸다. 하지만 2026년도엔 다시 매출이 완만하게 나마 증가하는 가운데 이익 증가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매출처 증대 영향에 힘입어 유럽 시장이 우려보다는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는 가운데 미국 시장 매출이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엔 2027년도에나 매출 증가 흐름을 나타낼 전망이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보다는 양호한 실적 기록이 예상된다. 제품별로는 주력인 DAS 제품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기대했던 오픈랜 매출이 저조한 양상이나 새롭게 매출에 가세하는 신제품 VARS가 중소형 건물 위주로 매출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제품 라인업이 증가함에 따른 수혜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실적 호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2019년과 같은 순환매 가능성 높다. 현 PBR 보면 주가 상승 폭 클 수 있다

2018~2019년 RFHIC에서 KMW로 이어지던 주가 급등이 결국 쏠리드의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정작 실적 호전이 본격화 되었던 2021~2023년도엔 주가 하락이 지속되는 다소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지나고 평가하면 장기 실적 호전 개선 기대감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런데 이러한 주가 선행성이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쏠리드 실적이 2025년 바닥을 찍고 2026년부터 서서히 반등하여 2027년 가파른 이익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지만 주가는 선행하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대표 통신장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쏠리드의 PBR이 1.5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순환매 차원에서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 국내외 통신장비 업종 Multiple을 보면 현재 쏠리드 주가는 매수하기에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2025년 4분기 실적도 양호한 상황에서 가격 부담이 없는 몇 안 남은 통신장비 업체라는 점에서 서서히 투자가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이란 판단이다.

2026년 2월 3일 | 기업분석_Update

우림피티에스 (101170)

[탐방노트] 신성장 산업으로 영역 확대

Not Rated

현재주가(2.2) **17,59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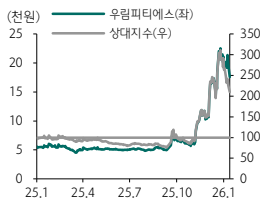
Key Data

KOSDAQ 지수 (pt)	1,098.36
52주 최고/최저(원)	22,550/4,510
시가총액(억원)	2,374.7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13,5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648.7
60일 평균 거래대금(억원)	377.5
외국인지분율(%)	0.34
주요주주 지분율(%)	
한현석 외 3 인	56.30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억원)	N/A	N/A
영업이익(억원)	N/A	N/A
순이익(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매출액	605	685	573	718
영업이익	21	54	25	(16)
세전이익	42	61	36	(80)
순이익	36	51	48	(78)
EPS	264	378	359	(577)
증감률	흑전	43.2	(5.0)	적전
PER	15.3	15.4	17.6	(8.2)
PBR	0.7	0.9	0.9	0.8
EV/EBITDA	0.0	0.0	1.3	0.0
ROE	4.3	5.9	5.4	(9.7)
BPS	6,187	6,497	6,732	6,057
DPS	100	100	50	30

Analyst 한유건 hyg0619@hanafn.com
RA 윤채리 yooncherry@hanafn.com

글로벌 기어박스 전문 제조기업

우림피티에스는 50년 업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어박스 전문 제조기업이다. 기어박스 분야에 있어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초정밀 부품부터 초대형 기어박스에 이르는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다품종 소량 수주와 효율적인 소품종 대량 양산 체제를 동시에 갖추고 시장의 다양한 수요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동사는 총 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제1공장은 에너지 및 플랜트 향 대형 기어박스를 주력으로 생산하며, 제2공장은 건설중장비용 제품과 차세대 제품인 항공, 방산, 로봇용 감속기 제조를 전담하고 있다. 3Q25 기준, 건설장비와 방산, 로봇 부문의 매출 비중이 전체의 약 65%, 제철설비 및 산업용 기어박스는 약 35%이다. 동사는 존디어, SMS, HD현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두산에너빌리티 등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신사업 부문 매출 비중 확대

동사는 축적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방산, 항공, 로봇 부문으로 사업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주력 매출 부문인 건설중장비 등 전통적 전방 산업이 최근 업황 둔화와 수요 부진에 직면함에 따라, 동사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신사업 부문에서 유의미한 실적 변화는 이미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과거 연간 1억원 수준에 머물렀던 방산 및 항공 부문 매출은 전방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최근 20억원 규모로 크게 증가하며 매출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방산 산업은 특성상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성 과제가 지속적으로 창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장기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로봇용 기어박스 분야에서의 성과이다. 현재 우림피티에스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전문 업체에 핵심 부품인 기어박스를 공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로봇용 부품은 극도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요구하는 만큼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다. 향후 전방 업체의 휴머노이드 로봇 본격 양산 시점과 맞물려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주가 베타(Beta)를 상향시키는 핵심적인 트리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4Q25 예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둔화 예상

2025년 4분기 예상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 전체 실적은 양호한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다. 2026년 (K-IFRS연결) 예상 매출액은 약 610억원, 영업이익 19.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매출 구조 측면에서 몇 가지 변곡점이 감지된다. 첫번째, 지난해 전반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했던 SMS 향 매출 인식 종료에 따른 일부 매출 공백이 예상된다. 두번째, 캐시카우인 중장비 부문은 글로벌 전방 산업의 업황 부진과 내수 수요 감소라는 이중고를 당장 회피하기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CAPEX 투자는 선제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 및 비용 증가 요인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부채비율은 약 20% 수준으로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2월 3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삼성SDI (006400)

그럼에도 불구하고

BUY (상향)

목표주가(12M)	420,000원(상향)
현재주가(2.2)	35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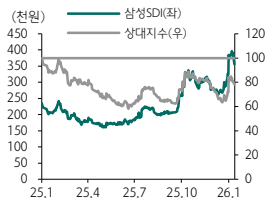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4,949.67
52주 최고/최저(원)	396,500/160,200
시가총액(십억원)	28,688.4
시가총액비중(%)	0.70
발행주식수(천주)	80,585.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792.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62.8
외국인지분율(%)	23.66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전자 외 4 인	20.31
국민연금공단	6.87

Consensus Data

	2025	2026
매출액(십억원)	12,907.6	14,936.5
영업이익(십억원)	(1,709.1)	(340.4)
순이익(십억원)	(623.8)	58.8
EPS(원)	(7,947)	(27)
BPS(원)	266,464	270,393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3	2024	2025F	2026F
매출액	21,436.8	16,592.2	13,266.7	15,561.2
영업이익	1,545.5	363.3	(1,722.4)	(737.4)
세전이익	2,381.8	527.3	(1,364.0)	(527.3)
순이익	2,009.2	599.3	(649.5)	(332.8)
EPS	27,788	8,288	(8,326)	(4,049)
증감율	2.93	(70.17)	적전	적지
PER	16.63	29.24	(32.37)	(87.92)
PBR	1.77	0.87	1.03	1.38
EV/EBITDA	11.58	13.38	457.75	49.51
ROE	11.48	3.13	(3.17)	(1.58)
BPS	260,787	278,144	262,136	257,155
DPS	973	973	973	973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4Q25 Review : 보상금 수취 효과로 이익 개선

4분기 실적은 매출 3.9조원(YoY +3%, QoQ +26%), 영업손실 2,992억원(YoY 적자지속, QoQ 적자지속)으로 5개 분기 연속 적자 지속됐으나 적자폭은 전분기 대비 축소됐다(+2,920억원). 1) 중대형 EV 부문(매출 비중 41%)의 경우, 물량 감소에 따른 보상금 수취 효과로 부문 매출이 전분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2) ESS 부문(매출 비중 24%) 역시 북미 NCA ESS 라인 가동 돌입하며 부문 매출이 전분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부문 전체 매출은 YoY +2%, QoQ +28% 증가했다. 부문 수익성 역시 보상금 수취 효과 힘입어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됐다(배터리 부문 OPM -9.3%, QoQ +13.0%p). 3) OLED 소재 중심의 전자재료 부문은 매출은 QoQ +2% 증가한 가운데, 수익성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유지됐다(OPM 16.6%, QoQ -0.2%p).

1분기 : 적자폭 축소 전망

1분기 실적은 매출 3.5조원(YoY +9%, QoQ -10%), 영업손실 3,168억원(YoY 적자지속, QoQ 적자지속)으로 적자폭이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QoQ -176억원). 중대형 EV 부문이 전분기 대비 매출 -20% 감소하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원통형전지의 ESS향 BBU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ESS AMPC 역시 지속 증가하며 전사 적자폭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

조정 시 매수

여전히 적자 구조하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의견을 BUY로 상향한다. 1Q25부터 3Q25까지 최대 6,000억원에 달하던 적자 규모가 4Q25/1Q26 3,000억원 내외, 2Q26/3Q26 2,000억원 내외로 축소 예상되는 가운데, ESS AMPC 증가 및 원통형 ESS BBU 출하 호조로 4Q26 흑자전환 가능성 높다고 판단해 타겟 멀티플을 조정,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를 상향하였다. 2027년 및 2028년 지배주주순익을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24M Fwd P/E 17배 적용 시 각각 24.6조원, 39조원의 시총이 도출된다. 따라서, 발간일 현재 시총 28조원은 27년의 성장성을 반영하고 28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볼 수 있다. 다만 극심한 실적 변동을 겪었던 최근 5년의 평균 배수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실적 개선 국면(2021년~2023년)에서 부여받았던 멀티플(평균 24배) 적용 시 27년 실적 기준으로도 20% 이상의 주가 상승 여력이 도출된다. 원통형전지 실적 개선 및 ESS AMPC 수혜 증가 고려해, 감익 구간이었던 2024~2025년보다는 2021~2023년의 멀티플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목표주가를 420,000원으로 상향한다. 물론 업황의 차이를 고려해 당시 멀티플 상단(37배)보다 낮은 밴드 평균(24배)을 적용하였다. 상승 여력 크지 않으니 조정시 매수 전략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판단한다. 2분기에 다시 QoQ 매출 반등 가능성 높다는 점에서도 주가 하방 압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완성차 도매판매 동향(2026년 1월)

자동차 물량 변수의 영향력 약화. 미래 성장동력이 주가 방향성을 좌우 | 2026.2.3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RA 강민아 minahkang@hanafn.coms

Key Insight: Valuation Multiple을 끌어올릴 수 있는 SDV 및 로보틱스 사업화 속도에 주목

판매동향
- 현대차/기아의 1월 글로벌 도매판매는 30.8만대/24.6만대로 -1%/+2% (YoY)
- 합산 글로벌 도매판매는 55.3만대(+0.5% (YoY)). 내수/해외 판매가 각각 +11%/-1% (YoY)
- 합산 도매판매는 지난달 0.8% 하락에서 0.5% 상승 전환

달성률
- 현대차/기아의 2026년 도매판매 목표는 1%/7% 증가한 415.8만대/335.0만대
- 1월 누적으로 계절성을 감안한 달성률은 각각 7.4%/7.3%
- 이는 과거 3년 평균 달성률 7.4%/7.6% 대비 유사/하회한 수준. 6년 평균 달성률 7.7%/7.8% 대비 모두 하회한 수준
- 2026년 목표 자체가 낮지만, 1월까지의 누적 판매는 현대차가 사업계획 범위 안, 기아가 소폭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주가
- 2026년 현대차/기아의 합산 도매판매 목표는 750.8만대(+3.2%). 산업수요의 저성장과 경쟁심화 등을 반영
- 2025년과 마찬가지로 환율/관세라는 외부 변수 및 미국/HEV라는 특정 시장/차종에서의 물량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속될 전망
- 현재 완성차 주가를 기준 P/E 9배 Valuation. 이는 글로벌 자동차 업종 평균 P/E 8배를 상회. 즉, 자동차 제조만의 Valuation은 적정 수준
- 자동차에서 Valuation 확장은 EV/HEV(=HW 관점)와 SDV/자율주행차(=AI 관점)에서의 진전이 중요. 이는 하반기 SDV Pace Car로 확인 가능
- 보유 중인 기술/공급망을 기반으로 로보틱스 등 성장 산업들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속도도 주가 상승의 핵심 변수
- 현대차그룹/관계자는 보스턴다이내믹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의 지분을 88% 보유하고 있어 로보틱스 사업화에 앞서 있는 상태
- 보스턴다이내믹스의 Atlas 로봇이 공장 배치 후 제품 개선, 초기 상용화, 고객 확대 단계를 거치면서 기업가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

현대차: 1월 도매판매 -1.0% (YoY). 내수/해외 +9%/-3%

도매판매
- 1월 글로벌 도매판매 30.8만대(-1.0% (YoY))
- 내수 5.0만대(+9% (YoY))/해외 25.8만대(-3% (YoY)). 해외판매 비중 83.7%(-1.5%p)
- 내수에서 승용 1.6만대(+6%), RV 1.8만대(+24%), 소상 0.6만대(-3%), 대형 0.2만대(+0%), 제네시스 0.9만대(-2%, 비중 17.3%)
- 내수 승용: 아반떼/쏘나타/아이오닉6/그랜저 -4%/+42%/+1,942%/-12% (YoY)
- 내수 RV: 캐스퍼/코나 +22%/+48% (YoY). 투싼/싼타페/팰리세이드 +17%/-30%/+98% (YoY)
- 내수 제네시스: G80/GV70/GV80 +10%/-1%/-11% (YoY)
- 내수 친환경차: 1.6만대(+34%). 친환경차 비중 31.0(+5.7%p). EV/HEV 각각 0.1만대/1.4만대(+258%/+26%)
- 내수 전기차: 신형 아이오닉9/아이오닉6 224대/245대 기여, 아이오닉5 +319% (YoY)

기아: 1월 도매판매 +2.4% (YoY). 내수/해외 +12%/+1%

도매판매
- 1월 글로벌 도매판매 24.6만대(+2.4% (YoY))
- 내수 4.3만대(+12% (YoY))/ 해외 20.2만대(+1% (YoY)). 해외판매 비중 82.4%(-1.6%p)
- 내수에서 승용 1.2만대(+15%), RV 2.8만대(+8%), 상용 0.4만대(+41%)
- 내수 승용: 모닝/레이 +41%/+15%. K5/K8 +7%/-7%
- 내수 RV: 니로 +249%. 셀토스/스포티지/쏘렌토/카니발 -15%/-8%/+13%/-13%. 신형 타스만 376대 기여
- 내수 친환경차: 2.1만대(+57%). 친환경차 비중 47.9%(+13.6%p). EV/HEV 각각 0.4만대/1.7만대(+483%/+36%)
- 내수 전기차: 신형 EV4 396대 기여, EV3 737대, EV6/EV9 +197%/+8%

2026년 02월 03일 | 산업분석_Update

증권

조정을 매수 기회로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2월 02일

삼성증권(016360)
BUY | TP 120,000원 | CP 83,700원

Analyst 고연수 yeonsookoh@hanafn.com

1월 KRX 증권지수 43% 상승, KOSPI 수익률 19%p 상회

1월 KRX 증권지수는 43.0% 상승하며, KOSPI 수익률을 약 19.0%p 상회했다.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브로커리지 관련 수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며, 거래대금 민감도가 높은 증권주 중심으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SpaceX 상장 및 디지털자산 시장 개화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며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연초대비 83.1% 상승, KOSPI 수익률을 약 59.1%p 상회했다.

1월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 62조원 기록(MoM +89%)

2026년 1월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62.3조원(KRX 42.0조원, NXT 20.4조원)**으로 전월대비 89.1%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최근 5거래일 기준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80조원**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고객예탁금과 신용공여잔고는 각각 106.0조원, 56.4조원으로 전월대비 20.7%, 9.9% 증가했다.

(KRX 기준) 수급 측면에서는 개인이 9.7조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8조원, 0.6조원을 순매수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KOSDAQ 시장에서 개인 순매도 규모가 10.1조원에 달했는데, 이는 개인 자금이 개별 종목에서 KOSDAQ ETF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월 개인 ETF 순매수대금은 전월대비 221.5% 증가한 15.0조원을 기록했으며, KODEX 코스닥150 및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ETF 순매수대금만 약 4.2조원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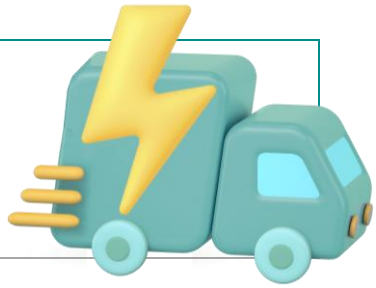
해외주식 거래규모도 견조한 흐름이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1월 해외주식 거래규모는 전월대비 1.4% 증가한 528억달러 기록했다. 해외주식 순매수대금은 48억달러로 전월대비 약 세 배 이상 증가했으며, 테슬라(8.8억달러), 알파벳(8.8억달러), 마이크론(3.2억달러) 등 AI·반도체 관련 종목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졌다.

삼성증권은 확신의 저평가 구간, 증권업종 Top Pick 유지

2월 2일 지수 하락과 함께 증권주도 조정을 받았으나,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을 감안하면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다.** 금리 인하 여부와 무관하게 증권업종 **실적의 핵심 변수는 거래대금**이며, 최근 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커버리지 증권사 중 삼성증권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가장 높다.

연간 국내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을 37조원에서 68조원으로 상향할 경우, 트레이딩 손익 개선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브로커리지 관련 이익 증가만으로 2026년 예상 ROE는 16.0% 수준이다(vs 키움증권 18.7%). **다만 현재 P/B 0.8배로 커버리지 내 낮은 멀티플** 기록 중이며, DPS 5,800원(배당성향 38%) 가정 시 **배당수익률 6.5%** 수준으로 현 주가는 확신의 저평가 구간이다. 삼성증권을 증권업종 Top Pick으로 유지하며,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판단한다.

글로벌 친환경차/2차전지 Monthly



2025년 12월 EV +6%, HEV +7%. 유럽을 제외한 주요 지역 부진 | 2026.2.3

투자의견	Overweight

자동차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 RA 강민아

2차전지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 RA 홍지원

전기차: 12월 글로벌 전기차 증가율은 +6% (YoY). 지역별 전기차 침투율은 중국 59.5%, 유럽 41.2%, 미국 6.6%, 한국 1.4%

글로벌
- 12월 212.3만대(+6% (YoY)). BEV/PHEV 137.9만대/74.4만대(+6%/+6%). 2025년 연간 2,050.9만대(+20% (YoY))

미국
- 12월 9.6만대(-41% (YoY), 비중 6.6%). BEV/PHEV 7.7만대/1.9만대(-42%/-38%). 2025년 연간 156.8만대(+0% (YoY), 비중 9.7%)
- 12월 판매대수 1위/2위는 테슬라의 모델Y/모델3로 각각 2.66만대/1.03만대

중국
- 12월 134.5만대(-2% (YoY), 비중 59.5%). BEV/PHEV 78.9만대/55.5만대(-5%/+2%). 2025년 연간 1,289.2만대(+16% (YoY), 비중 54.3%)
- 12월 판매대수 1위/2위는 Tesla의 Model Y/Geely의 Star Wish로 각각 6.59만대/3.61만대

유럽
- 12월 48.3만대(+44% (YoY), 비중 41.2%). BEV/PHEV 34.9만대/13.5만대(+48%/+34%). 2025년 연간 424.9만대(+35% (YoY), 비중 32.0%)
- 12월 판매대수 1위/2위는 테슬라의 Model Y/폭스바겐의 ID.4로 각각 2.50만대/0.89만대

한국
- 12월 0.2만대(-36% (YoY), 비중 1.4%). BEV/PHEV 0.2만대/0만대, FCEV 485대. 2025년 연간 12.5만대(+35% (YoY), 비중 7.3%)

하이브리드차: 12월 글로벌 HEV 증가율은 +7% (YoY). 지역별 HEV 침투율은 유럽 28.7%, 일본 51.3%, 미국 14.8%, 한국 29.7%

글로벌
- 12월 93.3만대(+7% (YoY)), 유럽 33.6만대(+6%), 일본 14.3만대(-5%), 미국 21.6만대(+26%), 한국 4.3만대(+4%)
- 2025년 연간 1,081.6만대(+13% (YoY)), 유럽 407.9만대(+13%), 일본 200.5만대(-2%), 미국 220.9만대(+37%), 한국 45.1만대(+16%)

현대차/기아: 12월 HMG의 친환경차/전기차 판매 증가율은 +11%/-14% (YoY), 전기차 비중은 5.9%,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1.7%

친환경차
- 12월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소매판매는 13.58만대(+11% (YoY), 비중 22.2%). 현대차/기아 각각 7.76만대(+13%)/5.82만대(+9%),
- 이 중 HEV 소매판매는 9.98만대(+24%, 비중 16.3%), 현대차/기아 6.03만대(+27%)/3.95만대(+19%)
- 2025년 연간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소매판매는 162.6만대(+17% (YoY), 비중 22.6%). HEV 소매판매는 103.9만대(+21%, 비중 14.5%)

전기차
- 12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소매판매는 3.60만대(-14% (YoY), 비중 5.9%). BEV/PHEV 2.99만대/0.61만대(-11%/-27% (YoY), 비중 4.9%/1.0%). 현대차/기아 각각 1.7만대(-20%)/1.9만대(-8%). 12월 누적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소매판매는 58.65만대(+10%, 비중 8.2%)
- 12월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은 현대차/기아 합산 1.7%(-0.4%p (MoM), -0.4%p (YoY)). 현대차/기아 각각 0.8%/0.9%(-0.2%p/-0.2%p (MoM), -0.3%p/-0.1%p (YoY)). 12월 누적 현대차/기아 합산 점유율은 2.9%
- 전기차 전용 모델들의 출하 동향: (현대차) 아이오닉5 출하 2,202대(내수/수출 440대/1,762대), 소매판매 1,645대(내수/유럽/미국 440대/1,155대/50대). 아이오닉6 출하 414대, 소매판매 4,416대. 아이오닉9 출하 864대. 제네시스 GV60 출하 161대(내수/수출 20대/141대). 넥쏘 출하 40대. (기아) EV6 출하 958대(내수/수출 83대/875대), 소매판매 1,930대(내수/유럽/미국 83대/886대/745대). EV5 출하 291대, 소매 2,014대. EV9 출하 881대(내수/수출 64대/817대), 소매판매 2,119대(내수/유럽/미국 64대/717대/1,019대). EV3 출하 3,352대. EV4 출하 959대

2차전지: 글로벌 12월 배터리 출하 +19%(YoY), CATL 1위

출하량
- 12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19%(YoY) 증가한 133.6GWh를 기록. 업체별 출하량은 CATL 56.8GWh(+29%), BYD 20.5GWh(+7%), LGES 12.0GWh(+5%), CALB 8.2GWh(+55%), SK on 3.8GWh(-8%), Panasonic 3.4GWh(+1%), 삼성SDI 2.2GWh(-14%)
- 12월 LFP 배터리 침투율은 글로벌 55.9%로 전월 대비 -2.0%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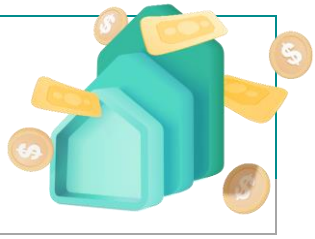
원재료 동향
- 주 원재료 가격 동향: 리튬/니켈/코발트/망간/구리/알루미늄/LiPF6 가격은 12월 +16%/+1%/+7%/+1%/+9%/+2%/+18%(MoM), 1월 +16%/+20%/+7%/+2%/+11%/+10%/-14%(MoM)

시사점 및 의견: 2025년 국내 셀 메이커 3사 유럽 합산 점유율 30%대 지속 유지

2차전지
- 2025년 12월 국내 3사(LGES, 삼성SDI, SK on)의 유럽 출하량은 각각 5.1GWh(YoY -3%), 1.4GWh(YoY +2%), 2.6GWh(YoY +41%)였으며, 합산 점유율은 33%로 전년 동월 대비 -11%p 하락. 2025년 연간 출하량은 각각 46.7GWh(YoY -1%), 13.1GWh(YoY -17%), 22.0GWh(YoY +34%)를 기록했으며, 합산 점유율은 35%로 전년 동기 대비 -11%p 감소해 점유율 하락세 지속. 같은 기간 유럽 시장 내 3사 합산 출하량은 81.8GWh로 전년 대비 +3% 증가하는데 그침. 유럽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로 전기차(BEV+PHEV) 누적 판매대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나, 국내 3사의 유럽 내 배터리 출하 점유율은 감소세. 다만, 긍정적인 점은 연초 대비 점유율이 더 하락하지 않고 방어되고 있다는 점. 3사 합산 점유율은 2025년 들어 30%대 지속 유지했음. 유럽 시장 내 비중국산 배터리 조달 비중을 최소 30% 이상 유지하려는 니즈 있다고 판단. 한국 기업들이 30%대 점유율을 계속해서 방어해낸다면, 2026년부터는 전방 시장 성장률만큼의 낙수효과 누릴 수 있다고 판단. 다만, 향후 합산 점유율 30% 붕괴 시 리스크 확대 가능성 잔존. 섹터에 대한 중립 의견 유지하되, 유럽 시장 낙수효과 및 미국 하반기 배터리 주문 재개 시그널 확인될 때 다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공급대책, 12월 주택통계

건설 Weekly | 2026.2.3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Analyst 하민호 minhoha@hanafn.com

주간 동향 및 이슈

주간 투자 전략 및 이슈 점검

- 수익률은 건설업이 코스피 대비 7.7%p 하회했다. 지난 주 수급은 기관/연기금은 매도, 외인은 매수했다. 기관과 연기금은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순매도를 기록, 외인은 삼성E&A를 중심으로 순매수를 기록했다. 삼성E&A는 실적발표 이후의 주가 상승세를 한 주간 더 이어갔다. 원전 관련 주는 국내 신규원전 2기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발표한 이후 하락했다. 주택주는 공급대책 발표에도 하락했다.
- 주요 지표로 전국 매매수급동향은 97.1으로 3주 연속 상승했다(+0.20%p).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2주 연속 상승(+0.10%), 전세가는 33주 연속 상승했다(+0.09%). 수도권 매매가는 48주 연속 상승(+0.17%), 전세가는 49주 연속 상승(+0.12%)했다. 서울 매매가는 53주 연속 상승(+0.30%), 전세가는 50주 연속 상승(+0.14%)했다.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 매매가는 모두 13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2%). 전세가는 지방광역시 26주 연속 상승, 기타지방 22주 연속 상승했다(각각 +0.07%, +0.06%). 광역시별 매매가는 인천(+0.04%), 부산(+0.04%), 울산(+0.14%)이 상승했으며, 광주는 보합, 대구(-0.02%), 대전(-0.01%)은 하락했다.
- 1/29에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발표됐다. 총 6만호를 도심에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며, 도심개발로 4.4만호, 노후청사로 1만호, 신규공공택지로 0.6만호다. 도심개발 중에서는 용산에 1.26만호(국제업무지구 1만호, 캠프킴 0.25만호), 과천 0.98만호(경마장/방첩사), 태릉 0.68만호다. 공급은 청년 및 신혼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는 청년 물량을 최대한 많이 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27년부터 착공을 목표로 한다.
- 25년 12월 주택 통계가 발표됐다. 2025년 누계로 착공은 27.3만호(-10.1%yoy)로 마감됐다. 착공의 90% 가까이가 아파트기 때문에, 2028년 준공물량은 30만호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5년 준공물량은 34.2만호(-17.8%yoy)이며, 12월 준공만 전년동월대비 50.5%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6년 준공물량은 30만호를 하회할 전망이다. 12월 미분양은 6.7만호로 전월대비 3.3%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미분양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의 감소가 두드러진다. 12월 대구의 미분양은 5,962세대로 한 달 사이에 1,632세대가 감소했다. 2022년말 13,445세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미분양이 많이 해소되었고, 부산(7,541세대)보다도 적은 수치다. 올해 대구 생활권에서 분양 예정인 건설사(대표적으로 아이에스동서의 경산)에게 호재로 해석할 수 있는 지표다.
- 이번 주 LX하우시스(2/3), 현대건설(2/4), HDC현대산업개발(2/4), GS건설(2/6), DL이앤씨(2/6)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삼성E&A의 실적발표 후 주가의 흐름을 보듯이, 저렴한 밸류에이션에 있는 종목이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국내 주택 업황을 고려했을 때 주택 실적이 1회성 요인 등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다. 3분기 실적발표 혹은 4분기 프리뷰에서 낮춰진 눈높이에 맞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실적 발표 전 매수를 하기 보다는, 실적의 내용과 올해 가이던스를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증권 (016360.KS)	2/2	90,600	83,700	-7.62%	• 발행어음 사업 진출 시 IB-WM간 시너지를 통해 이익 체력 강화될 수 있다 판단 • 거래대금 민감도가 높아 거래대금 추정치 상향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
대한전선 (001440.KS)	2/2	29,400	26,650	-9.35%	• 누적 수주잔고 3.4조원으로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중 • 북미 빅테크사들의 전력망 비용 직접 부담 증가로 지중선 발주 증가 기대
엘앤에프 (066970.KS)	2/2	126,300	123,300	-2.38%	• AI 관련 투자 확대로 전력 인프라로서의 ESS 중요도 급부상 • 미국향 매출 비중 3%미만, 미국 전기차 판매량 급락 쇼크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금호석유화학 (011780.KS)	2/2	144,100	137,000	-4.93%	• 최근 석유화학 시황에서 부타디엔과 MDI 가격 동반 강세 보이며 업황 개선 시그널 확인 •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및 지분법 이익(금호미쓰이화학) 기대
디앤디파마텍 (347850.KQ)	2/2	94,500	89,000	-5.82%	• MASH, 경구제까지 데이터 확인 시 가치 상향 가능 기대 • 파트너사인 미국 바이오텍 기업 멧세라가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경구제 개발 의지 피력
케이엠더블유 (032500.KQ)	2/2	18,920	18,070	-4.49%	• 삼성과 더불어 에릭슨, 노키아로의 매출 확장 가능성 상승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브이엠 (089970.KQ)	2/2	30,050	27,150	-9.65%	• 실적이 집중되는 상반기에 영업이익률 30%에 육박하는 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 • 25년 4분기부터 M15x 신규 투자 관련 매출액이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
덕산하이메탈 (077360.KQ)	2/2	8,890	8,970	0.90%	• 반도체, FCBGA 수요 증가에 따른 패키징 소재 증가 • 저수익성 Paste 제품을 상대적 고수익성 제품으로 재편하는 것을 추진 중
CJ프레시웨이 (051500.KQ)	2/2	27,950	28,200	0.89%	• 내수 경기 부진에도 식자재유통의 방어, 급식사업의 성장 기대 • 온라인 채널 고객사 빠르게 증가 중이며, 아파트/군 급식 등 신규 수주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25%	+0.01%p	+19.39%	+2.9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이수페타시스 (007660.KS)	2/2	117,500	110,600	-5.87%	• 26년 다중적층 MLB 양산 공급 본격화로 Blended ASP 대폭 상승 기대 • 강한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며 MLB에도 고속/저손실/고전력 특성이 요구되고 있어
에스티팜 (237690.KQ)	2/2	159,600	153,500	-3.82%	• 고객사로부터 선제적 상업화 물량 수주 증가로 실적 가시성 상승 • RNA 치료제 상업화 확대로 인한 올리고핵산 수요 폭증의 직접 수혜주
케이엠더블유 (032500.KQ)	2/2	18,920	18,070	-4.49%	• 삼성과 더불어 에릭슨, 노키아로의 매출 확장 가능성 상승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팬오션 (028670.KS)	1/19	4,155	4,840	16.49%	• 아비트라지 수요가 촉발되며 탱커선 운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 현재 MR탱커를 9척 보유하고 있으며, 연중 4척 추가 인도될 예정
기아 (000270.KS)	1/12	133,200	150,100	12.69%	• 셀토스 풀체인지 모델 출시 및 판매 본격화로 신차 효과 통한 물량 확대 지속 기대 • 이익 개선및 그룹미래 모빌리티 사업구체화 통한 밸류업 기대
에스피지 (058610.KQ)	1/5	82,700	148,500	79.56%	• 대표적인 정밀기계부품인 유성/SH/SR감속기를 모두 양산 가능한 국내 독보적인 기업 • 미국 주요 로봇 메이커의 4족 보행로봇에 에스피지의 유성감속기 적용 시작
삼성전자 (005930.KS)	1/2	119,900	150,400	25.44%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1/2	651,000	830,000	27.50%	• 4Q25 Review 매출액 32.8조원(YoY +66.0%), 영업이익 19.2조원(YoY +137.0%) 기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하이브 (352820.KS)	1/2	330,000	357,000	8.18%	• BTS, 26년 봄 신보 발매를 시작으로 연중으로 대규모 투어 진행 예정 • 글로벌 주요 거점 지역에서 다양한 현지 아티스트 데뷔를 준비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1/2	114,400	160,000	39.86%	• 일회성 비용 부재와 완제기 수출 부문의 일시적 믹스개선으로 3Q25 수익성 개선 • 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한국금융지주 (071050.KS)	1/2	161,700	199,800	23.56%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재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S-Oil (010950.KS)	1/2	83,000	101,000	21.69%	• 미국 내 정제설비 폐쇄 증가 감안시, 타이트한 수급 환경 유지되며 정제마진 강세 전망 • 트럼프의 중동 전략 변화, OPEC+의 빠른 감산 완화로 인해 OSP 안정화 가능성 높아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1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9.03%	+2.59%p	+19.03%	+2.59%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AI테크 TOP10 (485540.KS)	2025.07.22	12,290	14,630	19.0%	•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I 관련 핵심기업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종목.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를 비즈니스에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 Magnificent7와 AI5 기업들에 집중하는 테마 ETF • 상용화의 영역 확장이 지속되고 있으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버린 AI, 신제품 교체 수요들이 꾸준히 확인되고 있는 상황. 중국 수출 규제 완화와 트럼프 정부의 AI 육성 정책 모멘텀도 긍정적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20,735	59.5%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WON 미국빌리어네어 (489290.KS)	2025.02.03	13,065	15,260	16.8%	• 미국 최상위 억만장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로 구성하는 패시브 ETF. 미국에 상장된 주요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 Tech,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금융, 필수소비재의 5개 업종이 포트폴리오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 브로드컴,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50개 우량 종목으로 구성
에셋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407830.KS)	2024.09.25	9,690	15,810	63.2%	• 대체불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영위한 해외 플랫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액티브 ETF • 전문화와 분업화 가운데 각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는 기업들을 편입. 테슬라와 구글, 샤오미, 마이크로소프트, TSMC, 텐센트 등이 주요 구성 종목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QDF (미국 퀄리티 배당 주식)	2026.02.02	82.32	82.32	-	• 우량 배당주 선별 투자. 미국 상장 기업 중 펀더멘털(수익성, 경영 효율성, 현금흐름)이 우수하면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퀄리티' 기업들로 구성 •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은 하락 방어력이 높음. 성장보다는 안정성과 현금 창출에 집중하는 균형추 역할 기대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1.05	11.8%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03.46	19.0%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SHLD (미국 방산 기술 주식)	2025.04.25	50.62	75.24	48.6%	• 미국 인프라 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 테마 ETF. 산업재를 중심으로 소재, 건설장비, 운송, 엔지니어링 기업들을 편입하여 구성 • 금융시장 환경 변화 가운데 향후 정책 모멘텀 반영 가능성.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쇼어링은 양당 모두 선호하는 방향성. 품목별 관세의 연속성 고려시 협상 과정에서 미국 내 인프라 수요 꾸준히 증가 전망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1	2.2	2.3	2.4	2.5	2.6	2.7
	▪ 중국 1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50.3p, 12월 50.1p) ▪ 미국 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E --, 12월 51.9p)	▪ 한국 1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CPI (E --/--, 12월 2.30%/0.30%) ▪ 미국 1월 ISM 제조업지수 (E 48.3p, 12월 47.9p)	▪ 유로 1월 전월대비 CPI (E --, 12월 0.20%) ▪ 미국 1월 ADP 취업자 변동 (E 5만건, 12월 4.1만건)	▪ 미국 ISM 서비스업 PMI (E 52.9p, 12월 54.4p) ▪	▪ 미국 1월 비농업고용지수 (E 8만건, 12월 5만건) ▪ 미국 1월 실업률 (E4.4%, 12월 4.4%)	
2.8	2.9	2.10	2.11	2.12	2.13	2.14
	▪ 일본 12월 BoP 경상수지 (E--, 11월 3.7조엔)	▪ 미국 12월 전월대비 소매판매 (E 0.5%, 11월 0.6%) ▪ 미국 12월 전월대비 수입물가지수 (E --, 11월 0.0%	▪ 한국 1월 실업률 (E --, 4.0%) ▪ 미국 1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E --/0.2%, 12월 0.3%/2.7%)	▪ 일본 1월 전년대비/전월대비 PIP (E --/--, 0.1%/2.4%)	▪ 미국 1월 기존주택매매 (E 424만건, 12월 435만건)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